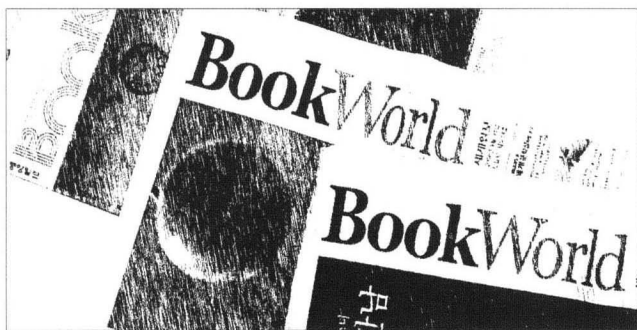


언론이 주목한 이달의 책

## ‘죽비같은 깨우침, 생명, 그리고 시장과 피시즘의 정체’ 영원한 저술의 화두, 인간.



새해 벽두 약속이나 한듯, 주요 신문들은 ‘생명’과 ‘깨우침’을 화두로 내건 두 권의 책에 크게 지면을 할애했다. 김지하 시인의 《생명과 평화의 길》, 인문학자 정민의 《죽비소리》에 중앙일간지들은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김지하’란 네임 밸류로부터 서물書物 이상의 의미를 구하고자 애쓰는 모습이였다. 5일자 〈한국일보〉는 “나의 얘기는 끝내고, 후배들의 각개약진을 기대하며, 그 후배들이 터줄 물꼬를 따라 후천개벽의 대사업을 이끌 붉은 악마, 촛불 세대의 창조적 비약을 권유하는 의미”란 저자의 변에 따옴표를 둘러쳤다. 그리고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에게 “‘혼돈적 질서’의 짐을 짊어질 것을 희망”한 출판간담회 석상의 언급을 소개하며, “자크 아탈리 등이 주창해 온 ‘디지털 유목문화’와 생태론자들의 ‘에코이즘’을 화해시키는 힘을 그들에게서 찾고자”한 저자의 뜻을 책의 의미에 같음하기도 했다.

15일을 전후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종합지들은 선조들의 금언이나 명언을 풀이한 《죽비소리》를 예상 못하게 취급했다.

〈동아일보〉는 “좋은 문장은 죽비소리처럼 사람의 정신을 깨운다”며 한문학자인 저자가 고려 초에서 조선 말까지 명 문장가들의 문장을 뽑아 번역한 뒤 평설評說을 단 이 책을 추천했다. 또 “중국 사람의 금언을 모은 책은 많다. 서양 격언을 모은 것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것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저자의 책머리 말을 인용했다. 같은 날짜 〈세계일보〉는 “몸과 마음에 좋은 문장이 배어들게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중시하며 여유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다운시프트’ 시대의 새로운 책읽기 흐름”이라며 “우리

글의 아름다움을 독자들에게 깨닫게 해온 정민 교수(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의 새책 《죽비소리》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죽비 같은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지난 연말 많은 신문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기 형식으로 소개해 온 돌베개의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가 11년 만에 15권 전권을 갈무리한 일에 크게 관심을 두었다. 12월 24일자 〈서울신문〉은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쉽게 읽힐 수 있는 해설과 생생한 사진 등에 힘입어 이 시리즈는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모두 40만 부 가량 판매되는 인기를 누렸다”고 돌이키며 “전국을 문화권 또는 행정구역으로 나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되, 누구나 쉽게 답사여행할 수 있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에 비준을 둔 책”으로 설명했다.

〈문화일보〉는 첫 출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후일담을 소상하게 되짚으며 더욱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다. 서평자는 “국민들에게 전 국토를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새롭게 인식시키고 문화유산 답사붐을 일으킨 제일 큰 공로자는 각권 서론 집필과 기획을 맡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임을 환기시켰다. 또 답사와 책짓는 일에서 애환을 함께 한 김효형(놀와출판사 대표) 씨의 말을 빌려 “각권을 만들면서 다시 2박3일 일정의 답사를 5차례씩 다녀왔으며, 원고를 완성한 뒤 이를 들고 다시 내려가 일일이 확인했음”을 새삼 강조하기도 했다.

‘작은 날갯짓으로 시장을 뒤흔든다’ - 12월 25일자 〈세계일보〉는 책 《나비효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이처럼 예상못지 않은 것을 달며 ‘디지털 마케팅’의 의미를 캐냈다. 신문은 “지구 저편의 미세한 차이가 지구 이편에서는 상상 이상의 기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정의하며, “이제 기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이 된 정치 사회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도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바람의 언저리에서 언론의 서가엔 이처럼 ‘경영’과 ‘마케팅’이란 테마가 두드러진 듯했다. 《나비효과 디지털 마케팅》 외에도 조안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톰 피터스의 《미래를 경영하라》,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이 그 중 주목을 받은 책들이다. 문형남 숙명여대(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15일자 <한국경제>에서 “경영을 제대로 해서 발전과 성장을 도모 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유용한 책”으로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강력 추천했다. 같은 날짜 <중앙일보> 역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기업으로 치면 불황 때 경영을 살피야 한다”며 이 책은 이때 유용한 ‘바이블’이라고 호평했다.

몇몇 신문은 또 ‘틀을 부셔라, 그러면 성공이 열린다’ (<동아일보> 8일자), 또는 ‘톰 피터스를 모르는 사람도 있나?’ (<경향신문> 8일자)라는 식의 도발적인 제목으로 톰 피터스의 《미래를 경영하라!》를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미래 경영의 출발을 ‘파괴’에서 찾은 저자의 경영 마인드에 주목하며, “‘초경쟁’의 시대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려는 자들의 운명은 죽음”이란 멘트에 밀줄 그었다. 또 ‘파괴할 용기가 없으면 창조는 있을 수 없다’는 명제와 함께, “리더가 ‘무결점’의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면 직원들은 아무도 새로운 꿈을 생각할 수 없으며 결국 ‘멋진 실패’도 ‘위대한 성공’도 탄생시킬 수 없다”는 지은이의 말을 애써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피터 드러커나 필립 코틀러의 반열에서 ‘톰 피터스’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서물로서의 가치나, 지은이의 브랜드 신뢰도에선 “긴 말이 필요 없다. 톰 피터스 아냐?”란 말로 대신했다. 또 그가 지은 이 책을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마케팅 방안을 찾기보다, 경영서를 탐독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설책처럼 ‘여유롭게 읽어보길’ 권했다.

‘파시즘’ 또는 ‘파쇼’처럼 불명확하면서도, 명료한 인과적 현상이 또 있을까? 신간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이 거의 모든 일간지들의 의미 있는 시선을 끈 것도 그 때문인 듯.

<한국일보> 8일자는 책 발간에 즈음, ‘대중정치 산물, 파시즘은 죽지 않았다’고 자못 단호한 진단을 내놓았다. 신문은 ‘파시즘’의 모호한 의미와 유래를 설명하는 한편, 저자인 로버트 팩스틴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려 “히틀러, 무솔리니 체제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이나 제3세계 독재를 파시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전적인 폭정과 달리, 파시즘은 대중의 열정을 끌어 모아 ‘내적 정화와 외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단결시킨다”며 특히 “그 새로운 파시즘의 가능성을 9·11 테러 이후의

미국에서 본다는 저자의 지적”에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기도 했다.

‘인간’ 역시 신문에서 다룬 많은 책들의 공통된 의제였다. 《자연의 재앙, 인간》, 《인간은 왜 늙는가?》 등 ‘인간’의 실체에 관한 물음이기도 한 책들 역시 언론의 관심에서 비껴날 수 없었다. <세계일보> 7일자 서평란에선 《자연의 재앙, 인간》에서 저자 프란츠 부케티츠가 토로한 인간존재에 대한 성찰을 부각시켰다. 신문은 “지구의 진화가 인간이라는 종을 탄생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인간의 역사는 곧 진보의 역사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착각일 뿐”이란 저자의 지적을 곁들였다.

한편 15일자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인간은 왜 늙는가》에 관한 장문의 서평을 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2150년에는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믿기지 않는 예측을 곁들이며 책읽기를 권했다. 실제로 책은 인간 노화 현상을 진화의 관점에서 풀이하면서 “2150년쯤이면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인간 수명 150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화 연구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현재 나돌고 있는 노화 방지 약품이 대부분 엉터리이고, 과도한 운동이 반드시 장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음”을 환기시켰다. 한편으로 “‘인간은 왜 늙는가’라는 질문을 과학적으로 풀이하려는 독자들을 겨냥한 책이므로, 확실한 장수 비결을 배우려는 독자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곁들였다.

이 밖에도 《적대적 공범자들》,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지식의 원전》,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미국사》, 《살아 있는 지구의 역사》, 《부여 현감, 귀신 체포기》, 《나는 날개를 달아줄 수 없다》, 《고래》,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의 서사시》,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고바우 김성환의 판자촌 이야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동네는 어땠을까》, 《유클리드의 막대》,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 《강의》, 《필벽 평전》, 《두 남자 프랑스 요리로 말을 걸어오다》, 《예수 하버드에 오다》, 《유전자 변신 이야기》,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2》, 《세계사를 뒤흔든 발굴》, 《생각하는 그림들-정, 오늘》 등도 이달 언론이 주목한 책들이다. **주필**

<출판저널> 편집부